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2026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우수사례집

안전현장의 영웅들



2026
산업재해 예방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안전현장의 영웅들

유공자
우수사례집





Contents

산업
훈장

사람이 문제라면 답도 사람에게서 나온다 8

철탐훈장 강 보 성 생산본부장_동아제약(주) 천안공장

31년, 노사와 함께 쌓은 안전의 무게 12

석탐훈장 김 광 일 본부장_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
포장

예방은 사람을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18

이 미 라 프로_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

타협 없는 원칙, 흔들림 없는 현장 22

정 석 민 팀장_현대스틸산업(주)

리더가 현장에 설 때, 안전은 문화가 된다 26

권 순 일 센터장_LG전자(주)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는 근로자의 마음속에 있다	31
류 용 완 계장_대한제강(주) 녹산공장	
안전은 지시가 아닌 실천으로, 관리가 아닌 문화로	32
김 태 연 공장장_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	
소통으로 위험을 낮추고 참여로 현장을 지키다	33
이 세 형 현장소장_㈜반도건설	
안전의 시작은 결과보다 원인을 먼저 관리하는 것	34
박 상 형 실장_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주)	
안전은 실천과 참여로 완성된다	35
장 우 수 안전관리자_롯데칠성음료(주) 양산공장	



모든 스태프의 안전한 퇴근이 최고의 콘텐츠 완성	37
고 경 환 부장_㈜씨제이이엔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조직의 문화를 만든다	38
이 건 백 수석_SB성보(주)	
도로 위 사각지대를 지운 10년의 기록	39
권 도 영 국장_(사)퀵서비스협회	
‘괜찮겠지’보다 ‘한 번 더 확인’	40
이 병 문 기사장_㈜유한양행	
내일의 위험을 오늘 읽는 현장 안전	41
강 명 식 차장_대방산업개발(주)	
직업병의 신호를 먼저 읽으면 노동자의 건강이 보인다	42
정 태 성 팀장_한양대학교병원	
서류 속 규정 너머, 사람을 향한 25년의 안전	43
박 한 봉 부장_㈜아진피앤피	



장관표창	4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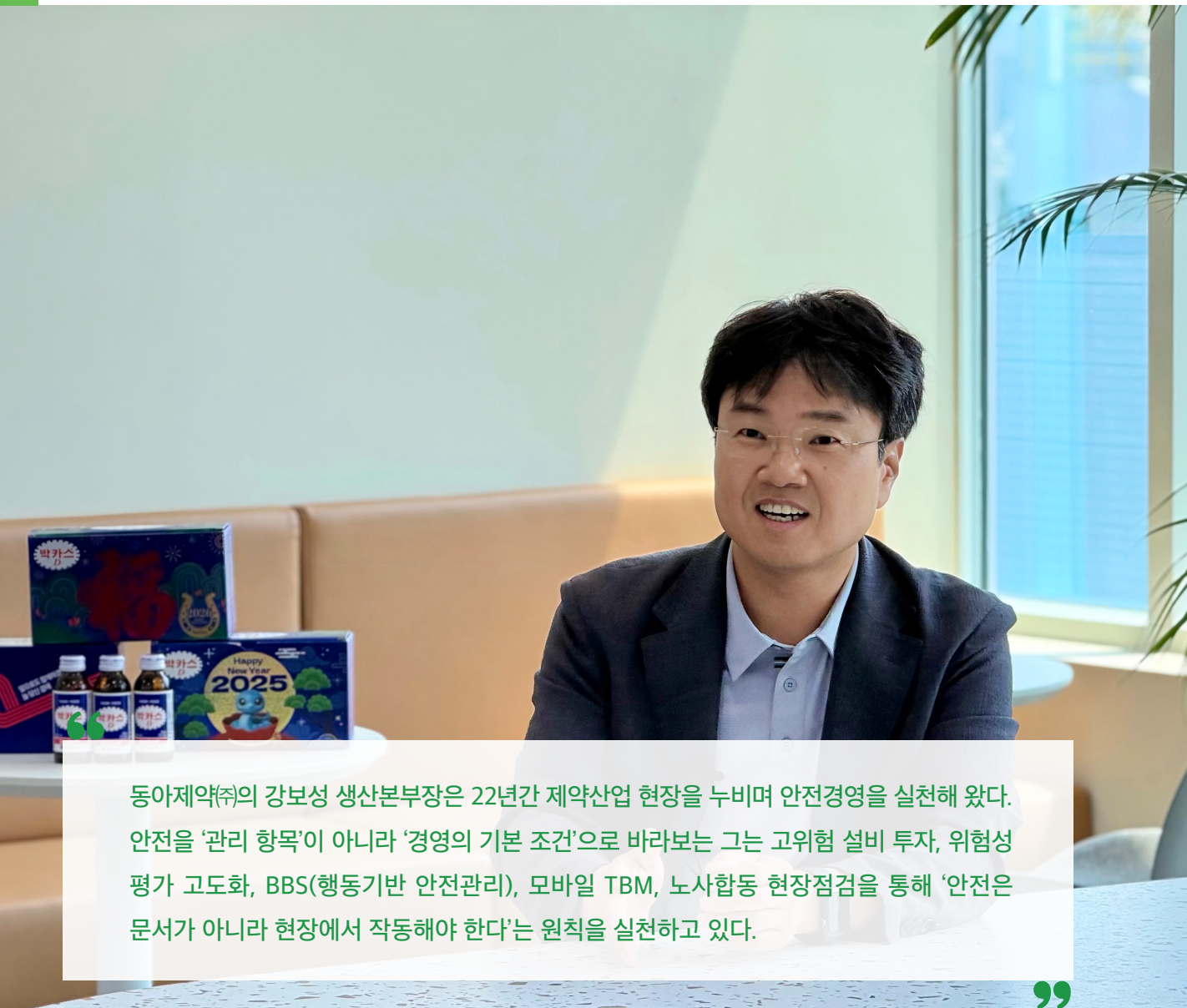


오래, 깊이,
안전을 지켜온 사람들

사람이 문제라면 답도 사람에게서 나온다



강 보 성 생산본부장_동아제약(주) 천안공장



동아제약(주)의 강보성 생산본부장은 22년간 제약산업 현장을 누비며 안전경영을 실천해 왔다. 안전을 ‘관리 항목’이 아니라 ‘경영의 기본 조건’으로 바라보는 그는 고위험 설비 투자, 위험성 평가 고도화, BBS(행동기반 안전관리), 모바일 TBM, 노사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막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했느냐’를 먼저 묻는 문화는 사고를 숨기게 만듭니다. ‘우리 시스템은 왜 그 사고를 막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개인을 문책하는 대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재발을 막는 출발점입니다.”

박카스로 잘 알려진 동아제약은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활건강제품 등을 생산하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다. 의약품 제조업은 기계설비, 중량물, 전기설비 같은 일반적인 위험요인 외에 약리활성물질, 에탄올·IPA·아세톤 등 유기용제와 같은 화학물질 노출 위험도 상존한다. 클린룸 환경에서 무진복을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신체적 부담도 따른다.

이처럼 여러 위험이 맞물린 현장에서는 개인의 주의만으로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 22년간 제약 생산현장을 지켜온 강보성 생산본부장은 안전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 활동으로 보고, 고위험 설비에 대한 선제적 안전투자에 집중했다.



유해요인을 줄이기 위해 신축한 품질혁신센터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공장 자동화창고 개선이었다. 자동화창고는 센서, 인터록, 자동제어 프로그램으로 정밀하게 움직이지만, 많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랙(rack, 적재 선반)이 높게 설치돼 있다. 여기에 자동화창고용 운반장비인 리프터와 자동운송기구가 고속으로 움직이고, 비정상 가동 시 작업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 문제 지점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설비관리팀, 안전보건팀과 협의해 생명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했다.

제조설비 회전체 안전커버와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도어 견시창, 밀폐공간 전용 측정장비와 보호장비도 마련했다. 시험실이 노후화되고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영진을 설득해 품질혁신센터 신축도 끌어냈다.

“안전시스템은 ‘완벽한 사람’을 전제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피곤할 수 있고, 익숙함 속에서 방심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중대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비적 보호장치와 인터록, 표준 작업절차와 작업허가, LOTO와 점검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자동화 창고에 설치된 추락 방지망

행동이 쌓여야 문화가 된다

2025년 상반기, 천안공장 제조팀에서 연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해 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대부분 익숙한 방식이 아닌, 처음 시도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정비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에 강 본부장은 안전전담 PM을 선임해 불안정한 행위가 예상되는 작업은 PM과 팀장이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게 했다.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하도록 했고, 우수분임조에는 별도 시상과 포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그 결과 동일한 사고는 재발하지 않았다.

이 경험을 계기로 행동기반안전관리(BBS, Behavior Based Safety)를 도입했다. 주 2회 모바일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12개 핵심 안전행동과 60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현장 관찰과 안전행동대화를 진행했다. 자체 개발 TBM 애플리케이션으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TBM 416회를 실시했고, VR 체험형 안전교육은 63명이 참여해 98%의 긍정 반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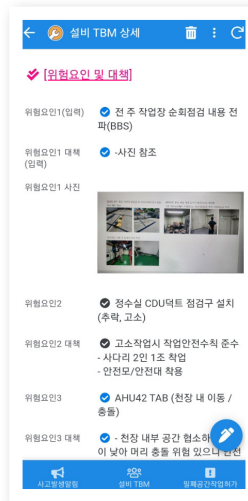


현장을 걸어다니며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SWD(Safety Walk Day)’ 활동

‘SWD(Safety Walk Day)’도 꾸준히 운영했다. 경영진과 노동조합, 현장근로자가 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걷는 안전점검’이다. 2025년 총 36건의 과제를 도출했고, 35건을 완료해 97.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2026년 2월에는 이천공장에서 다시 실시해 16건의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기도 했다.

“안전문화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험을 발견하고, 함께 고치고, 다시 확인하는 행동이 반복될 때 습관이 됩니다. 결국 안전은 말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과 실천으로 쌓입니다.”

안전문화를 사업장 밖으로도 넓혔다. 2023년 11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카스 유통망을 활용해 전국 22,000여 개 약국 종이봉투에 산재예방 문구를 삽입했다. 3개월간 총 450만 부를 배포하며 시민의 일상 속으로 안전 메시지를 전했다.



자체 개발
TBM 애플리케이션



박카스 약국 봉투를 활용한
산재예방 캠페인

위험이 눈에 보이는 사업장을 향해

강 본부장은 협력업체와의 상생 안전에도 공을 들였다. 본사와 천안·이천·당진공장에서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 결과를 공유했다. 2026년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내용을 명문화했다.

강 본부장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사업장은 ‘위험이 눈에 보이는 사업장’이다. 위험요인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익숙함으로 경각심이 낮아질 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사원부터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BBS, TBM, LOTO, SWD 활동을 지속 운영하고, 최근 제정한 ‘Stay Safe Rules’ 7대 원칙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SAFE-D(Safety Action Feedback & Encourage-Donga) 체계를 구축해 우수 안전활동과 개선사례를 발굴·공유하며, 안전을 실천하는 구성원이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안전이 무너지면 생산도, 품질도, 납기도, 고객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약산업에서 근로자를 지키는 일은 결국 제품의 품질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은 부가업무가 아니라 제약산업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준이죠. 모든 구성원이 오늘도, 내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회사
슬로건



동아제약

오늘도 안전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동아제약(주) 천안공장의 산재예방 핵심 point

- ✔ 자동화창고 생명줄·추락방지망 설치 등 고위험 설비 안전투자
- ✔ 위험성평가 271건 관리 및 허용불가 87건 공학적 개선
- ✔ BBS, 모바일 TBM, SWD 운영으로 현장 실행력 강화
- ✔ 박카스 약국 봉투 450만 부 활용 등 산재예방 공익캠페인 추진



31년, 노사와 함께 쌓은 안전의 무게



김 광 일 본부장_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 김광일 본부장은 31년 넘게 현장과 정책을 오가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제도와 실천으로 연결해왔다. 중소기업 사업장 1,560개소를 찾아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현장 활동만 26년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그는 안전을 노사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책임으로 바라본다. ”

현장과 제도를 함께 아는 안전보건 전문가

한국노총은 150만 조합원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대표 노동단체다. 27개 회원조합, 16개 지역본부, 56개 지역지부가 전국 현장과 연결돼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그 안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진단·정책 활동을 맡고 있다.

김광일 본부장은 1994년 한화자동차부품에서 위험요인 분석, 설비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 관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첫발을 뗐다. 2000년 한국노총에 합류한 뒤에는 노동자 관점에서 산재예방 활동을 펼쳤다. 기계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안전공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현장경험과 전문성도 쌓았다.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안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산재를 막으려면 노동자가 위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그 말을 개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전은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 본부장이 오랫동안 힘을 쏟은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이다. 26년간 매년 60개소 안팎의 사업장을 찾아 누적 1,560개소를 진단했다.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프레스 설비의 방호장치 해제, 끼임 위험구간의 안전표지 미흡, 중량물 취급과 고소작업 과정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진단 이후 해당 사업장은 설비 안전장치 재정비와 함께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추락방지 설비를 보강했다. 현장 진단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치로 연결된 사례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시작했다. 2021년부터 매년 1개소씩 지원해 현재까지 누적 5개소에 이른다.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부터 ISO 45001 도입 컨설팅, 현장개선 기술지원까지 사업장별 상황에 맞춰 지원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회의 참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안전보건 진단

“작은 사업장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거나, 개선을 해 보려고 해도 사람도 시간도 부족해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업장 여건에 맞는 순서와 방법을 같이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김광일 본부장에게 산재예방은 제도나 점검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일이다. 작업중지는 노동자의 권리이고, 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이며, 위험성평가는 노동자의 참여에서 시작되자는 원칙을 현장과 정책의 언어로 풀어왔다. 노사정 협의의 테이블에서, 중소 규모 사업장 진단 현장에서, 교육장과 법·제도 개선의 자리에서 줄곧 같은 기준을 확 인해 왔다.

안전보건 활동의 주체는 노동자

김 본부장은 안전보건 활동이 전문가나 사용자만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봤다. 노동자가 위험을 알고, 말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예방도 가능

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보급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보건지킴이 다이어리’다. 10년 넘게 매년 3,500개소 사업장에 배포해 누적 35,000부가 전달됐다.

다이어리에는 연간·월간·주간 안전보건 활동 계획표와 위험기계·기구 점검표, 위험성평가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해 제작하고,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법령집과 해설서도 매년 제작·배포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항을 핵심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모범 단체협약 자료집도 발간했다.

교육방식도 바꿨다.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VR을 활용한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건설업의 자재 낙하·비래, 제조업의 끼임·협착 등 주요 재해 유형을 직접 체험한 뒤 사고 원인과 예방수칙을 익히는 방식이다. 2026년 한 해 총 4회 운영해 약 24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장에 보급한 안전보건지킴이 다이어리



VR을 활용한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잇다

김 본부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제도 논의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했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서비스종사자 보호, 과로사 예방,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 등을 다룬 노사정 합의에 함께했다. 2023년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문화 조성 방안 논의에도 참여했다.

이런 제도 개선 노력은 현장의 인식 변화에서도 확인됐다. 법과 제도가 바뀐 뒤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회사가 안전 문제를 예전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위험한 작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보람을 느낀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제도 접근성이 낮은 노동자, 위험을 말하기 어려운 현장까지 예방 활동이 닿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안전은 누가 더 많이 양보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자는 데에는 노사 모두 같은 방향을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논의에 담고, 그 변화가 일터에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우리회사
슬로건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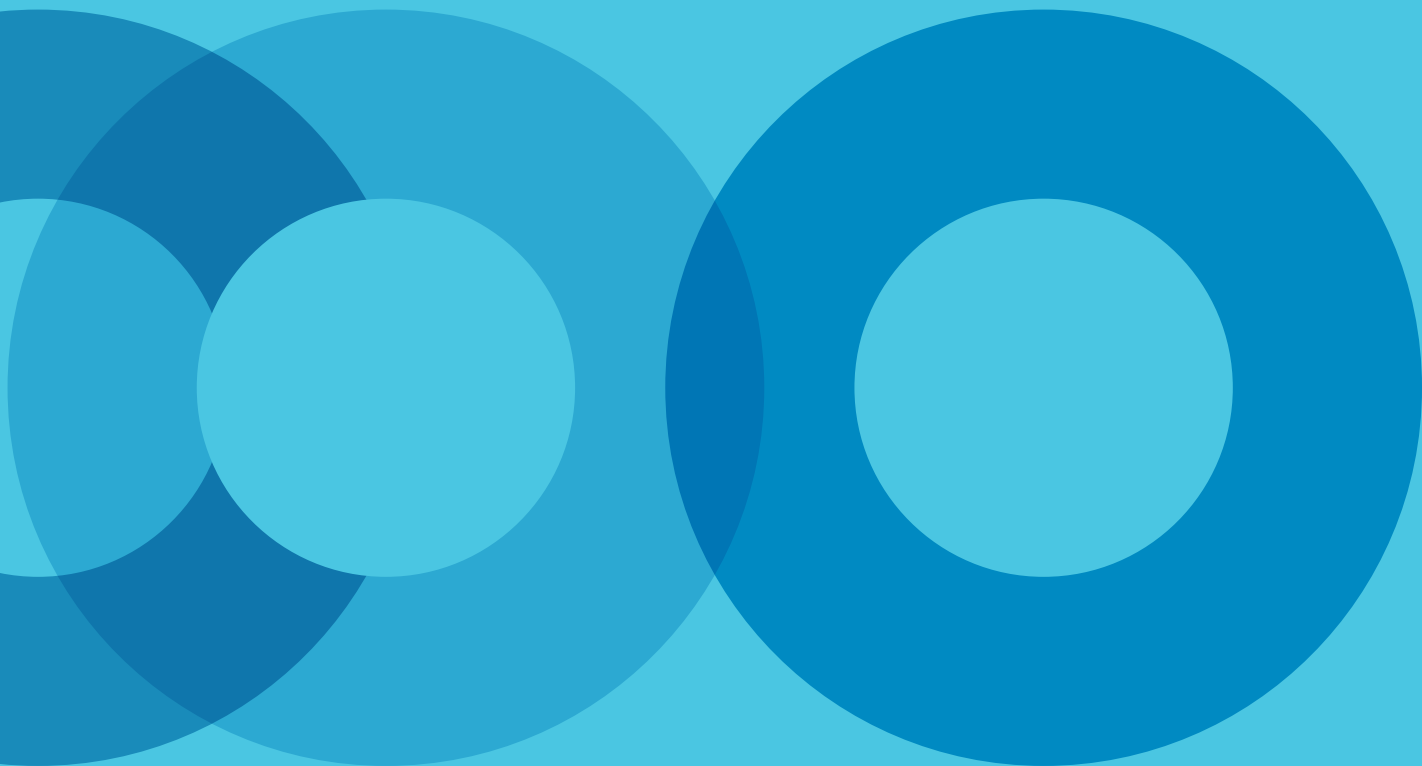
**위험성평가의 출발점은
노동자의 참여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산재예방 핵심 point

- ✓ 26년간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 누적 1,560개소 실시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 ✓ 안전보건지킴이 다이어리 누적 35,000부 보급
- ✓ VR 체험교육, 법령집·해설서 등 현장맞춤형 자료 제작·배포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일터가 된다

예방은 사람을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미 라 프로_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30년 넘게 산업보건 현장을 지켜온 이미라 프로는 건강검진 사후관리와 건강상담, 작업 환경측정, 화학물질 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까지 근로자의 몸과 마음을 돌보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건강지표를 단계화하고 고위험군을 꾸준히 관리해온 덕분에 최근 15년 이상 업무상 질병과 작업환경측정 기준 초과 0건이라는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

위험 신호를 먼저 읽는 보건관리

엘아이지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기업이다. 정밀한 기술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장의 이상 징후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 기계 및 전기설비, 중량물 취급, 화학물질 사용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고, 사소한 부주의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제품 품질과 생산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라 프로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왔다.

“방산 현장은 기술이 정밀한 만큼 확인도 철저해야 합니다. 작은 위험을 놓치면 기술도, 미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프고 나서 챙기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위험신호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라 프로가 강조하는 ‘아프기 전 관리’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건강지표를 자가관리군·예방관리군·집중관리군으로 구분하고, 연간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

리 계획을 세웠다. 고위험군은 정기 상담과 추적 모니터링으로 위험신호를 꾸준히 확인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 방식도 바뀌었다. 결과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체크리스트와 PAOT, 즉 참여형 개선 훈련 기법을 활용했다. 보건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실천가능한 개선방안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신호에도 주목했다.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지만 업무 부담, 대인관계 등으로 불편,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근로자들도 있었다. 이런 신호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도록 스트레스 자가진단,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도 연계했다.

“직업성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부담이나 노출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로자와 함께하는 건강상담



화학물질 보관 상태와 관리 기준을 확인하는 현장점검

근로자의 몸에 부담이 쌓이는 공정도 꼼꼼히 체크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로 부담작업을 찾아내고, 필요시 작업방식을 개선했다. 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뇌심혈관계질환 1:1 실습 교육 이수제를 도입해 협력업체 포함 95% 이상의 이수율을 유지했다.

이미라 프로는 현장의 유해요인을 줄이는 데도 집중했다. 작업환경 개선에는 식스시그마와 PDCA 사이클을 적용했다. 측정, 분석, 개선, 효과 확인의 과정을 반복하며 소음, 화학물질,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집중관리했다. 소음 공정은 85dB 이하로 관리하고, 정기 작업환경 측정과 수시 자율측정을 병행해 위험요인을 줄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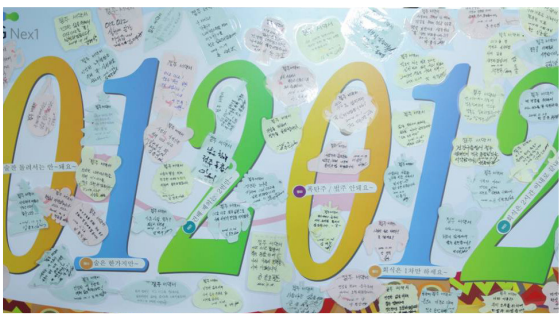
화학물질 관리는 CMS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독성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신규 물질 도입 전 사전심사 체계도 마련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누락을 막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도 정비했다.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공정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을 제한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없이 법정 관리체계를 유지한 것도 이러한 예방관리의 결과다.

건강관리를 문화로 만든다

이미라 프로는 근로자 건강관리가 보건관리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했다. 지난 2009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직원 10명과 ‘건강구름팀’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다. 회사 로고에 담긴 ‘희망구름’의 이미지에서 착안해 건강한 생각과 실천이 구름처럼 사업장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절주 및 걷기 실천 캠페인,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집중한 건 절주문화 확산이다. 이미라 프로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문화활동으로 풀었다. 관리자들도 절주 실천 서약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이끌었고, 팀별 절주 동영상 경연대회도 열었다.

‘술잔은 돌리지 않고, 술은 한 가지만, 건배는 두 번만, 폭탄주와 별주는 하지 않고, 회식은 1차·2시간 이내로 끝내자’라는 의미를 담아 ‘0·1·2·0·1·2’ 술로건도 만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0·1·2·0·1·2' 절주 서약 캠페인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었다. 이 구호는 대표이사가 전사에 공표할 만큼 사업장 전체로 확산됐다.

함께 건강해야 안전한 일터가 된다

이미라 프로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건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안내도 지원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보건관리는 눈에 띄는 이벤트보다 오래 실천되는 습관을 만드는 일이었다. 제도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작은 위험을 일찍 발견해 생활 속 실천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꾸준한 관리의 결과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전 임직원 대상 뇌·심혈관계질환 1:1 실습교육 이수율은 95%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최근 15년 이상 업무상 질병과 작업환경측정 기준 초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라 프로는 숫자보다 현장의 변화를 먼저 말한다. 근로자가 건강하게 출근해서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상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현장에서 만났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건강상담을 하며 고민을 나눴던 분들,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정년퇴직 인사를 건네던 분들이요. 저 혼자 받는 상이 아니라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애써 준 동료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회사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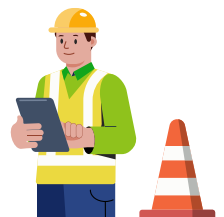
LIG Defense & Aerospace

**안전은 원칙으로,
건강은 문화로**



엘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의 산재예방 핵심 point

- ✓ 30년 이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 보건관리 체계 구축
- ✓ 건강지표 단계화와 고위험군 추적관리로 맞춤형 건강관리 운영
- ✓ 건강구름팀을 통한 참여형 건강증진 문화 확산
- ✓ 최근 15년 이상 업무상 질병·작업환경측정 기준 초과 0건 유지



타협 없는 원칙, 흔들림 없는 현장



정석민 팀장 _ 현대스틸산업㈜



“ 현대스틸산업㈜ 정석민 안전환경팀장은 29년간 안전업무 한길을 걸어온 HSE(보건·안전·환경) 전문가다. 해상풍력 구조물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원칙을 정했으면 타협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일일 안전회의, 안전약자 보호제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등을 정착시키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천해 왔다. ”

생명줄 하나가 증명한 원칙의 힘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왜 자꾸 멈추라고 하나, 평생 이렇게 해도 사고 한번 안 났다며 서운해하는 직원들을 설득할 때면 지치고 외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잔소리꾼이자 까다로운 감시자로 보였을지는 몰라도,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의 생명과 건강이었습니다.”

현대스틸산업 울춘공장은 해상풍력, 장대교량, 해상구조물 분야의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약 10만 평 규모의 공장에 하루 평균 500여 명이 근무하고, 수십 톤에서 1,000톤이 넘는 중량물을 다루며, 최고 96m 높이의 고소작업도 진행된다. 한순간의 방심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이다.

안전업무 29년 차인 정석민 팀장이 특히 타협하지 않았던 분야는 ‘추락 방지’다. 법적 기준인 2m 이상 고소작업뿐 아니라 1m만 넘어도 생명줄을 설치하게 했다.

“저 정도 높이에 무슨 생명줄이냐, ‘안전벨트가 2미터 인데 저 높이에서 걸어봐야 소용없다’는 불만이 쏟아졌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추락 높이를 발바닥이 아닌 머리 높이로 계산해 무조건 머리 위로 생명줄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 원칙이 빛을 발한 날이 있었다. 데크 구조물 작업 중 한 근로자가 추락했지만, 머리 위에 고정된 생명줄이 몸을 붙잡아 큰 부상을 면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고, 해당 근로자는 ‘생명줄을 걸지 않았다면 무릎과 허리를 크게 다쳤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이처럼 정 팀장이 만드는 안전은 규정을 넘어 실제 생명을 지키는 원칙이다.

그는 자신의 안전철학을 ‘오카(OCA) 안전문화’로 명명했다. O는 관찰(Observation), C는 소통(Communication), A는 수용(Acception)이다.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관찰하고(O), 위험하다 싶으면 거리낌없이 말하고(C), 누군가 안전을 지적해 주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다(A)는 약속이다. 지적과 통제가 아닌,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대화로 안전을 바꾸자는 취지다.



현장 근로자와 위험요인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오카(OCA) 안전활동



고소작업 전 생명줄과 안전대 체결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원칙을 정했으면 타협하지 않는다

울촌공장의 핵심 위험 중 하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다. 정 팀장은 작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자를 참여시키고, 작업 5분 전에는 TBM을 다시 실시했다. 당사와 파트너사 관리감독자, 안전팀은 작업계획서를 재확인하고 크레인 작업 반경, 줄걸이 방법, 중량물의 무게중심(COG) 등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이상 발견 시 작업을 중단시켰다.

중량물 인양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와 슬링벨트에는 색상 꼬리표를 부착하는 ‘컬러코딩 제도’를 도입했다. 매월 정기점검 후 색상이 지정된 꼬리표를 달아 점검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고, 안전하중을 꼬리표에 함께 표기해 미점검 장비를 사용하거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실수를 차단했다.

샤쿨, 하카 등 달기구와 지게차 포크는 6개월마다 비파괴 안전검사를 실시해 이상 발견 시 즉시 폐기했고, 지게차는 3단 기어를 제거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

하로 제한했다. 법에 없는 기준도 필요하면 만들었다. 신호 방향은 지게차 운전자 기준으로 통일하고, 천장·갠트리 크레인과 고소차 운전원은 자체 교육과 시험을 거친 뒤에만 작업하도록 했다.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안전수칙 위반 시간, 장소, 내용, 사진까지 기록해 협력사 대표에게 전달해 조치로 이어지게 했다. 형식적으로 흐르던 관리자 점검방식도 개선했다. 아침 체조 직후에는 실제 작업 행동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점검시간을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대로 조정했다.

안전 약자를 먼저 보고, 협력사와 함께 움직이다

안전의 시선은 약한 곳으로 더 먼저 향했다. 외국인, 신규근로자, 고령자, 초고령자에게는 안전모 식별 띠를 부착해 주변의 배려를 끌어냈다. 보건실이 작업장과 멀다는 점에 착안해 ‘찾아가는 현장 보건서비스’도 운영했다. 아침 TBM 후 보건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건



와이어로프와 슬링벨트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컬러코딩 점검



지게차 과속 방지를 위해 설치한 속도제한 안내판

강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밀폐공간 작업자, 기저질환자에게는 스마트 안전밴드를 착용시켜 혈압·체온·심정지 이상이 생기면 관리자에게 위치정보와 함께 문자가 전달되도록 했다.

“풀뿌리 안전은 협력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사에 안전담당자가 없으면 당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현장의 세세한 위험을 챙기기 어렵죠. 그래서 영세 협력사 5개사의 안전담당자 인건비를 월 250만 원씩 보조하는 방안을 본사에 직접 기안해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협력사 위험성평가 담당자 외부 교육비를 지원하고 파트너사 안전담당자에게 최초 4시간, 분기별 2시간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보건 역량도 끌어올렸다. 고용

노동청 점검표를 기준으로 상·하반기 협력사 서류와 현장을 점검해 지적사항과 예상 과태료, 보완 방법까지 업체 대표에게 안내했다.

정 팀장은 스마트 안전밴드 확대, 멀티모달 AI(영상·센서 복합분석) 도입, 안전시스템 셰이피(SAFFY)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하인리히 법칙에서 착안한 ‘CLEAN300’을 정착시켜 3년 안에 반복 지적사항을 90% 이상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수상은 안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회사와, 매번 까다롭게 구는 저를 믿고 따라와 준 동료들이 함께 땀 흘려 받아낸 안전 성적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근로자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서운 눈으로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우리회사 슬로건



현대스틸산업

우리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





현대스틸산업(주)의 산재예방 핵심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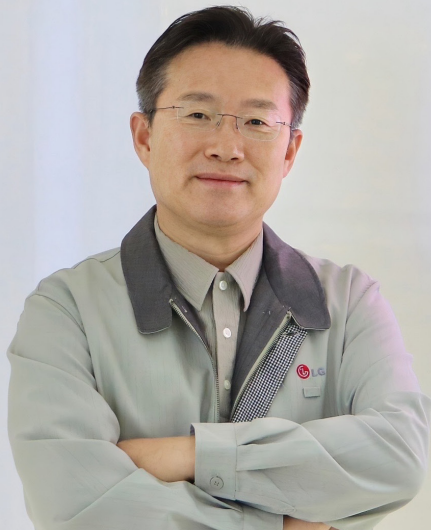
- ✓ ‘오카(OCA) 안전문화’로 현장 소통 강화
- ✓ 중량물 작업 전 TBM 및 작업계획서 현장 확인
- ✓ 안전약자 보호제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운영
- ✓ 협력사 안전담당자 인건비·교육 지원



리더가 현장에 설 때, 안전은 문화가 된다



권 순 일 센터장 LG전자(주)



“

LG전자(주) 안전환경센터 권순일 센터장은 16년간 안전보건 분야를 맡아온 최고안전책임자(CSO)로, 국내 제조·연구개발 사업장, B2B 외부 시공현장, 해외 사업장까지 안전환경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안전은 시스템이 지켜주고, 리더가 앞장서며, 원·하청이 함께할 때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마트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상생 안전망을 구축해 글로벌 사고 발생 건수를 2년 만에 57.8% 줄였다.

”

■ 안전을 경영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우다

LG전자의 안전관리 영역은 창원·평택·구미 등 제조거점과 서울 본사·R&D 사업장, 전국 서비스센터, B2B 외부 시공현장까지 폭넓게 펼쳐져 있다. 임직원 3만 4천여 명과 1,000개가 넘는 협력사, 3,800여 개 외부 시공현장이 맞물려 움직이는 만큼 안전은 한 부서의 업무만으로 완성될 수 없었다.

이 복잡한 안전관리 구조를 하나로 묶어온 사람이 권순일 센터장이다. 1995년 입사한 그는 창원·평택공장과 본사에서 안전환경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본사 안전환경센터를 맡고 있다. 중대재해 연구로 보건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권 센터장이 현장에서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안전보건 원칙이 현장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리더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안전은 회의실 의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경영의 기준입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까지 책임질 때 비로소 안전은 일상이 됩니다.”



현장을 찾아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Safety Walk 활동

권 센터장은 이 생각을 제도로 구체화했다. 모든 임원이 사업장을 찾아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Safety Walk’와 매월 사업본부 경영회의에서 안전보건 현안을 논의하는 ‘Safety Talk’를 정례화했다. 권 센터장도 2025년 한 해 총 60차례 점검에 나섰다. 이런 활동은 CEO부터 현장 관리감독자까지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됐다.

여기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까지 더했다. 노동조합과 노경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안전코칭과 BBS(행동기반 안전관리)로 근로자의 작업 행동을 개선해 나갔다. 위험성평가 방식은 전산화와 AI 적용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우수 안전활동을 발굴·공유하는 우수사례 대회에는 연간 7,500만 원 이상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안전활동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로 바꿔간 것이다.

■ 위험은 시스템이 먼저 감지한다



LG디지털파크 안전체험센터에서
안전장비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아무리 교육을 하고 주의를 당부해도 휴먼 에러, 즉 사람의 실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의력에만 의존하는 안전에는 한계가 있죠. 붉은 신호일 때 멈추는 것처럼, 위험요인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한 뒤에야 재개하는 원칙을 시스템으로 구현할 때 안전은 완성됩니다.”

권 센터장은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위험을 시스템이 먼저 감지하도록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SHEE(안전·보건·환경·에너지) 통합관계센터다. AI 카메라와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 곳곳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관계센터를 통해 즉시 경보가 전달된다.

현장 출입 단계에서도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도록 했다. 공사 작업자 출입을 관리하는 ‘Safety Gate’는 안면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음주 여부와 혈압, 체온 등 건강 상태,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해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작업자가 실수하거나 설비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폴프루프

(Fool Proof, 오조작 방지)와 페일세이프(Fail Safe, 고장 시 안전) 원리를 반영한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예방체계와 함께 사고 대응체계도 갖췄다. 사고 발생 후에는 권 센터장이 사고 재발방지 회의인 ‘사·재·회’를 주관해 원인과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권역별 주요 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전 생산사업장에 구급차와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중증사고 대응력도 높였다.

안전은 모두의 책임, 모두의 문화

권 센터장은 안전을 LG전자 내부 사업장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원청 사업장의 안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협력사와 외부 시공현장에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면 진정한 예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발주자 17개 항목, 도급인 2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제정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사내 협력사 210개, 외부 공사업체 836개 등 총 1,046개사를 대상으로 적격수급인 평가를



전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SHEE 통합관계센터



현장 출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걸러내는 Safety Gate

실시했고, 890개사를 선정했다. 협력사의 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ISAS시스템도 구축해 원·하청이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하고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안전관리 범위도 제품 설치와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했다. 2024년에는 임원 조직인 ‘건설시공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해 외부 현장 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2025년에는 39개 안전점검 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B2B 외부 시공현장 3,000여 곳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별 안전관리도 지원했다. 최근에는 제품 시공 현장에 단계별 ‘Safety Gating’ 제도를 도입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은 수주심의 단계에서 배제해, 위험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차단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 모든 활동의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다. LG전자의 글로벌 사고 발생 건수는 2023년 135건에서 2025년 57건으로 57.8% 감소했다.

권 센터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AI 이상 예지·감지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검증, SHEE 통합관제센터를 고도화하고 있다. 위험을 더 일찍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을 사전에 멈추는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수상을 LG전자의 안전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전 사업장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의 무게를 잊지 않고 책임 있게 이끌겠습니다.”



LG전자(주)의 산재예방 핵심 point

- ✓ 경영진이 먼저 움직이는 Safety Walk·Safety Talk 정착
- ✓ SHEE 통합관제센터·AI 장비로 스마트 안전관리 구축
- ✓ 1,046개 협력사 평가로 예방역량 검증 890개사 선정
- ✓ B2B 외부 시공현장 3,000여 곳 순회점검





함께하는 실천으로
안전의 온도를 높이다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는 근로자의 마음속에 있다

31년간 고온의 쇳물과 무거운 철강재가 오가는 현장을 지켜온 류용완 계장은 현장의 작은 불안정한 행동도 귀신같이 포착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찰나의 방심이 동료들을 다치게 하고 한 가정을 고통에 빠뜨리는 장면을 가까이서 목격해 온 그는 지적과 감시 대신 소통과 코칭을 택했다. ‘SF1054 안전모니터링 시스템’과 ‘SGR(절대안전수칙)’을 기반으로 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자에게 다가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류 계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생산공정을 관리해 왔다. 부서 간 장벽을 낮춘 팀·개인 단위 ESG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 활동에 참여해 현장의 불안정한 상태를 개선하고, 공정흐름 변경 등 근본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안전교육은 딱딱하고 뻔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사내 안전보건 공식 유튜브 채널 ‘안전한 家(가)’ 제작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류 용 완 계장_대한제강(주) 녹산공장

동료들이 직접 출연해 현장의 위험요소와 안전 노하우를 전하며,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해서 가족들과 만나자’고 말하는 장면은 교육 이상의 강력한 울림을 줬다.

안전을 지켜내려는 노력은 회사 안팎에서 지속되고 있다. TBM 내실화를 위해 위험예지 활동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안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위험성평가 기법도 전수했다. 매월 경영진이 주관하는 안전분석회의와 해당 안전리더십(VFL, Visivle Felt Leadership) 활동에 참여해 현장 최일선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가고 역할도 해내고 있다. 그렇게 쌓은 노력은 ‘무재해 10배수 달성’이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는 근로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믿음처럼, 대한제강(주)의 안전은 최고 경영자의 안전리더십과 시스템, 현장의 모든 인원이 책임감과 동료애를 더하며 한 걸음씩 진화하고 있다.

DaehanSteel

우리회사
슬로건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한다



안전은 지시가 아닌 실천으로, 관리가 아닌 문화로

대한민국 최초로 석유수지를 생산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은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학공정 사업장이다. 단 한 번의 누출·화재·폭발 사고가 근로자와 인근 사업장,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현장이지만, PSM 평가 최우수 등급인 P등급을 5회 연속, 20년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김 공장장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과 철저한 현장관리가 있었다.

김 공장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관리하기 위해 사외 지하배관 누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관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련 부서가 즉시 공유·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화재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CCTV와 불꽃감지기(IR+UV)를 연계한 감지·경보체계도 개선했다. 지게차와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작업 특성을 고려해 지게차 안전관리 시스템(IPAS)을 도입, 충돌과 협착 위험도 낮췄다.



김 태 연 공장장_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

이 시스템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전 사업장의 지게차 안전관리 표준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점검에서 놓치기 쉬운 안전 사각지대에 QR을 부착해 구성원이 직접 찾아내도록 한 ‘안전 QR 찾기’가 대표적이다. 최다 발견자와 우수 개선제안자를 시상하며 참여를 이끈 결과, 올해 250여 건의 개선의견이 제출됐고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Risk Zero TFT’ 운영,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안전은 지시가 아닌 실천이며, 관리가 아닌 문화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롤모델 사업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KOLON INDUSTRIES

우리회사
슬로건

안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소통으로 위험을 낮추고 참여로 현장을 지키다

(주)반도건설 고양 장항 M1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은 하루 8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Fast Top-Down 공법, Slurry Wall, PRD 기초, DBS II 역타공법 등 고난도 공법이 적용되는 대형 건설현장이다. 초고층 시공과 대심도 굴착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추락, 붕괴, 낙하물, 장비 충돌 등 복합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세형 소장은 이러한 현장 특성에 맞춰 공정별 위험을 사전에 읽고 통제하는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가장 중점을 둔 건 모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문화다.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협력사 사전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개선대책 수립에 근로자 의견을 반영했다. 대표 사례가 PRD작업 근로자들과 함께 제작한 ‘항타기 케이싱 방호선반’이다. 기존 낙석방지 조끼 착용만으로는 낙하물 위험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고 보고 케이싱 구간에 물리적 방호조치를 설치해 1,500공 이상의 파일 시공을 낙하물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이 세 형 현장소장 (주)반도건설

공도구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해 아이디어를 모아 확산소화기가 부착된 철재 충전함도 제작·설치했다. 이런 노력은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건설업 분야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굿모닝 아침인사, 굿데이 안전일터’ 활동으로 동료의 컨디션을 살피는 문화를 만들고, 고혈압·당뇨 등 고위험군 근로자를 챙기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가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순회하고 근로자 교육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원·하청이 같은 눈높이에서 위험을 살피는 구조를 만들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스마트 위험성평가 AI 자동번역 서비스’로 안전소통의 빈틈도 줄였다.

‘미리 계획하고, 충분히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실행·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원칙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B 반도건설

우리회사
슬로건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안전의 시작은 결과보다 원인을 먼저 관리하는 것

전기차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주)은 제조와 R&D가 공존하는 복합 사업장으로 고전압 설비, 산업용 로봇, 화학물질 등 여러 위험요인이 맞물려 돌아간다. 박상형 실장은 이곳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 완료까지 추적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기준을 통합하고, S-bank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했다. 과거 사고유형을 분석해 중상·사망 고위험 작업을 선정하고 주간 모니터링과 테마점검으로 관리했다. 신설·변경설비도 설치 전 안전성 심사와 시운전 점검을 거쳐 생산과 R&D 현장의 위험을 줄였다.

안전교육의 체질도 바꿨다. 안전체험교육장을 적극 활용해 책상 앞에서 듣는 교육이 아닌 직접 보고, 느끼는 교육이 되도록 했다. 전 임직원이 입사부터 퇴사까지 단계별로 안전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생애주기를 설계하고, 진급자·안전담당자·조직책임자 등



박상형 실장_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주)

역할에 맞춘 12가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영했다. 교육장은 사내 구성원은 물론 협력사 신규입사자와 임직원, 사외 기관과 사업체에도 개방했다. 안전역량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25년 안전체험교육장 우수사례 대상을 받았다.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을 장려하는 ‘안전환경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매월 안전수칙 준수 우수자를 ‘SHEE 안전히어로’로 선정해 현장의 자부심도 높이고 있다. ‘도전! 안전 골든벨’, ‘나의 안전다짐·실천의 날’ 등 사고예방 강조기간을 통해 구성원들이 안전을 부담이 아닌 일상의 실천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안전전문가를 ‘사고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박 실장은 결과보다 원인을 먼저 파고드는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회사
슬로건

출근 모습 그대로 퇴근!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실천과 참여로 완성된다

롯데칠성음료(주) 양산공장은 음료 생산라인이 빠르게 돌아가는 자동화 제조현장이다. 고온 멸균공정, 기계설비 정비, 지게차 혼재작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어 작은 부주의도 철저히 차단하며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

그 중심에서 22년간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온 장우수 안전관리자는 기계·전기설비를 직접 점검·보수했던 현장경험을 살려, 작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며 실천할 수 있는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 적용해 왔다.

그중 하나가 비정형 정비작업 중 설비 오작동을 막는 LOTO 개선이다. 기존에는 박스형 패널의 전원 차단에는 대응할 수 있었지만, 최신설비의 모니터 터치 패널 조작을 직관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 안전관리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가방덮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정비 중 모니터 전체를 덮어 조작을 차단하는 LOTO 패널을 고안했다. 작업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차



장우수 안전관리자_롯데칠성음료(주) 양산공장

단효과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비정형 작업의 잠재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평가받았다.

물류 작업장에서 지게차와 보행자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지능형 접근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호수를 고정 배치했다. 출입구마다 보행자 태그 전용부스와 충전장치도 마련했다. 반기별 ‘안전문화 강조주간’에는 소화기 분사, VR 재난안전 체험, TBM 경진대회 등을 진행했고 커피 캡슐더에 ‘안전을 최우선으로’라는 메시지를 담아 일상에서 안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근로자가 위험요소와 개선안을 내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옥외쉼터·이동식 에어컨·쿨링물품 지원 등 기후변화에 맞춰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했다. ‘안전은 실천과 참여로 완성된다’는 신념으로 장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목소리와 생활 속 아이디어를 실천 가능한 안전으로 바꾸고 있다.



우리회사
슬로건

민들없는 안전보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최우선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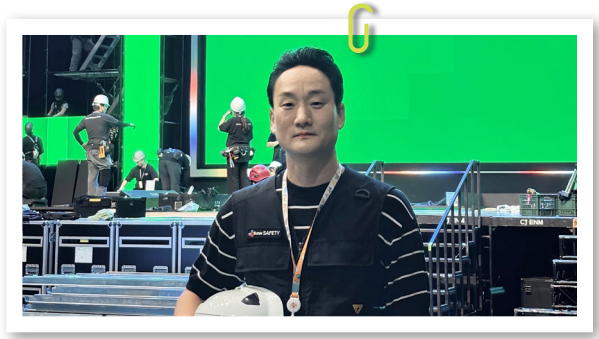
작은 실천이 모여
안전의 흐름을 바꾼다



모든 스태프의 안전한 퇴근이 최고의 콘텐츠 완성

CJ ENM의 콘텐츠 제작 현장은 무대 구조물, 조명·음향·영상 장비, 전기설비, 특수효과, 고소작업, 관객 동선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경환 부장은 안전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콘텐츠 분야에서 공연·행사 안전관리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입사 당시 별도 안전조직이 없던 환경에서 안전관리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후 콘텐츠업계 최초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이끌었다. ISO 22301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까지 더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공연 전, 셋업 중, 공연 중, 공연 후로 나눈 안전 프로세스를 정립한 점이 대표적이다. 공연 전에는 PM들과 위험성평가 및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셋업 단계에서는 작업계획서를 확인한 뒤 TBM을 실시했다. 공연 중에는 특수효과와 열화상 점검, 관객 밀집 관리



고 경 환 부장 (주)CJ ENM

까지 챙기며 위험요인을 차단했다. 셋업과 해체 시 외부 안전업체의 '무대해체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선임해 고위험 작업의 안전성도 높였다. 최근에는 점검 영역을 팝업스토어, 뮤지컬, 스포츠 행사까지 넓히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된 안전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공연장에 위험성평가를 접목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자체예산과 조직을 활용해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모·안전벨트 등 보호구도 제공했다. 사옥에는 '무한리필 안전모' 함도 마련했다. 콘텐츠 제작현장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항목을 두어 보안요원 배치, 비상약품, 음료 구입 등 필요 조치가 즉시 이뤄지도록 했다. '모든 스태프의 안전한 퇴근이 최고의 콘텐츠 완성이고, 모든 관객의安心이 최고의 흥행'이라는 원칙아래 K-콘텐츠 안전의 길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회사
슬로건

당신의 안전한 오늘이 내일의 감동이 됩니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조직의 문화를 만든다



이 건 백 수석_SB성보(주)

32년을 안전관리자로 살아온 이건백 수석의 현장은 화학물질과 제조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으로 원료 취급, 설비 정비, 화기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대응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작업이 많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관계 법령 기반의 3단계 개선 프로세스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소방법 등 관련 법령과 사고사례를 검토해 개선 기준을 세우고, 설비와 작업방식, 기존 관리체계를 분석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후 개선 조치의 효과를 따져 최적의 방안을 적용한다. 이러한 체계적 활동은 2025년 화학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제4회 소방안전관리대상 최우수상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리감독자가 2023년 5명에서 2025년 20명으로 확대되면서 현장의 안전 실행력도 높아졌다. 이 수석은 전동지게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와 충전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공기호흡기와 화학

물질 보호복을 갖췄다. 사다리로 이동하던 작업장소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계단으로 바꾸고, 옥외계단 난간대와 핸드레일도 보강했다. 인화성액체 취급시설에는 질소발생기를 설치해 화재·폭발 위험을 낮추고, 최소산소농도 관리 검증도 시행했다. 복합형 가스농도측정기와 이동식 포소화설비, 저장탱크 상부 작업발판 보강 등 법 기준을 넘어서는 예방 조치도 추진했다.

협력업체에는 공정별 One-Sheet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도 지원했다. 전 근로자 참여 합동점검으로 유해·위험요소 74건을 발굴·개선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합동점검 결과와 아차사고, 중대재해 사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유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결국 조직의 문화를 만든다’는 안전철학으로 법과 원칙을 현장에 맞게 풀어내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SB SUNGBO

SB With, ‘같이 가는 가치’ 실현



도로 위 사각지대를 지운 10년의 기록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일터는 교차로, 빗길, 무거운 짐을 싣고 오르는 오르막길이다. 고정된 사업장도, 관리 감독자도 없는 도로 위에서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권도영 국장은 이 사각지대를 허무는 일을 10년간 해왔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안전교육이었다. 실제사고 사례 중심의 퀵서비스 특화교육을 기획해 종사자들이 이동 동선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4만 8,090명이 이수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에는 신규 종사자가 안전교육을 받는 체계를 마련해 1만 9,708명이 안전수칙을 익히고 도로에 나섰다.

몸을 보호할 장비가 없으면 사고충격을 줄일 수 없다는 판단에 조끼일체형 가슴·등 보호대를 직접 기획하고, 가슴·등 보호대 총 1,875개를 보급했다. 무릎 보호대 3,200개와 야간 추돌방지용 고휘도 반사스티커 7만 5,684장도 배포했다. 보호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



권도영 국장_(사)퀵서비스협회

고, 자신의 체형에 맞게 올바르게 착용하는 실습과 도로 위 사고 발생 시 동료를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과정에 포함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종사자에게 보호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 건네는 방식의 안전캠페인에는 1만 4,50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영세 사업주와 이동노동자를 잇는 안전망도 넓혔다. 5인 미만이 많은 퀵서비스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 도구와 컨설팅을 지원했고, 지자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 모델도 확대했다. 권 국장은 ‘가장 빠른 길은 안전한 길’을 모토로 무리한 속도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습관이 더 오래 일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번 수상을 7만 5천여 퀵서비스 종사자와 영세 회원사, 협회 임직원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고 말하며, 플랫폼·이동노동자 분야에서 누구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예방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속도보다 사람이 먼저다





‘괜찮겠지’보다 ‘한 번 더 확인’

‘위험은 관리될 수 있으며, 사고는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사고를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위험의 결과로 생각하는 이병문 기사장은 과거 현장에서 미세한 위험요인을 미처 제거하지 못해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뒤 더욱 단단해졌다. 이후 매일 작업장 전 구역을 순회하며 위험요인을 미리 발굴·개선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계단 첫 단과 끝 단에 형광 테이프를 부착해 전도·추락 위험을 줄이고, 계단 출입문에 안내 표지와 경고 문구를 설치해 이용자 간 충돌을 차단한 것도 그렇게 현장을 걸으며 얻어낸 결과다.

이 기사장은 본사 차원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합운영하고, 사전준비부터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이행 점검과 기록까지 관리 흐름을 체계화했다. 창립 100주년 구사옥 개발공사에서도 공기 단축이나 위험 공법 강요를 막고, 필요시 공기 연장과 설계변경을 승인하는 등 공사 전 과정에서 재해 가능성을 낮추는 발주자 중



이병문 기사장 (㈜유한양행)

심의 안전관리 문화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도급·용역·위탁업체의 산재예방 역량과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종사자도 TBM과 위험성평가, 안전제안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현장의 의견도 꼼꼼히 듣는다. 안전제안제도를 운영하며 모든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지하주차장 주차 스톱퍼 설치처럼 현장 제안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119안전센터와 합동 화재대응 및 대피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위기상황 대응력도 높였다. 이러한 활동은 ISO 45001 인증 유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전 사업장 사망사고 0건 유지’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괜찮겠지’보다 ‘한 번 더 확인합시다’라는 습관을 체화해 온 이 기사장은 안전한 일터에서 시작된 작은 확인이 누군가를 행복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예방의 힘을 쌓아가고 있다.



유한양행

일터에서 지킨 안전,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



내일의 위험을 오늘 읽는 현장 안전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눈앞의 작업만 보는 일이 아니다. 오늘 타설하는 구간 주변에서 내일 어떤 장비가 움직이고, 다음 주 어느 공정에서 추락·감전·화재 위험이 커질지 먼저 읽어내는 일이다. 강명식 차장은 20년 넘게 건설현장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는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원칙을 실천해 왔다. 양주덕계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도 작업 전 TBM과 위험성평가 회의를 통해 공정별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매주 수요일을 ‘안전예방의 날’로 정해 위험을 점검·공유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그가 현장에 뿌리내린 대표 활동은 필수 6대 안전수칙 ‘**밀·고·사·장·전·화**’다. 밀폐공간, 고소작업, 사다리작업, 장비작업, 전기작업, 화기작업을 집중 관리하자는 의미와 함께, 사고 위험이 보이면 작업을 멈추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현장소장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수칙



강명식 차장_대방산업개발㈜

을 만들고 실천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해 안전을 규제가 아닌 현장의 약속으로 바꿨다. 타 현장의 중대재해 사례가 발생하면 특별 TBM을 열어 원인과 개선 대책을 공유하고, 유사 장비와 공정도 합동점검했다.

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현장맞춤형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훈련 때는 80kg 훈련용 인형을 활용해 구조방법과 장비 투입까지 점검했다. 넓은 건설현장에서 긴급상황을 빨리 전파하기 위해 무전기 연동 비상방송 시스템을 도입했고, 고위험 구간에는 접근감지 음성정보기를, 화재 취약구간에는 ‘119 소화스티커’도 적용했다. 지역 현장의 안전사례를 나누며 중소 협력업체 멘토링으로 원·하청 안전격차도 줄였다. 현장 동행 점검과 밀착 멘토링으로 20여 명의 후배 안전관리자를 길러낸 그는 ‘안전은 관리가 아니라 습관이고,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작은 신호를 읽으며 내일의 위험을 막고 있다.

우리회사
슬로건

위험성평가는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D 대방산업개발



직업병의 신호를 먼저 읽으면 노동자의 건강이 보인다

화학물질 노출, 소음, 분진, 근골격계 부담 작업 등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정태성 팀장은 30년간 산업보건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로,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2023년 경기도 이천 세척제 중독사고 발생 직후 특수건강진단을 즉각 실시해 급성 간중독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와 후속 대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도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작업공정과 세척제 취급환경을 종합 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며 유사 사고의 재발도 차단했다.

보건관리의 외연도 넓혔다. 보건관리 위탁사업장을 확대하고, 일반·특수건강진단 대상자도 1만 8천여 명에서 2만 5천여 명으로 늘렸다.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해 110여 개 사업장을 방문하며 보호구 실습,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환경관리 지도



정 태 성 팀장_한양대학교병원

를 수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서울 지역 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했다.

교육과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조리·급식·시설 종사자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 화학물질 관리, MSDS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7종 개발,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건강분야 위험성평가 가이드 개발 등 실효성 높은 기준과 지침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는 건설업 보건관리의 문제점을 공식 발표하며 제도개선 논의의 근거를 제공했다.

직업병은 작은 노출이 쌓이고, 방치가 반복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내는 것, 그것이 정 팀장이 30년간 현장 곁을 지켜온 이유다.



한양대학교병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우리회사
슬로건

근로자의 건강, 작업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서류 속 규정 너머, 사람을 향한 25년의 안전

25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온 박한봉 부장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처음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주는 파장을 보면서 '안전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그래서 사무실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루에도 수차례 작업장을 순회하며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박한봉 부장은 대형 회전체 설비가 쉽 없이 돌아가고, 고온·고압 스팀설비와 중량물 취급작업이 맞물리는 제지공정 특유의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설비 안전장치 보완, 작업표준 정비 등으로 안전을 다졌다. 위험성평가는 관리자 주도에서 벗어나 현장 작업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참여형으로 전환했다. 안전수칙 준수가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지켜내는 공동의 성취가 되도록 분기별 무재해 달성 포상제도도 도입했다. 원·하청 안전보건협



박한봉 부장_㈜아진P&P

의체를 정례 운영하며 위험요인과 사고사례, 안전수칙을 공유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휴게시설 이용과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은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무재해를 이어오는 기반이 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책임감은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업종 전체로 향했다. 유사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장 간 안전보건 정보교류 부족으로 동일한 재해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2025년 4월 대구경북제지업안전보건협의체를 발족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정기 회의와 SNS 정보공유방을 통해 사고사례, 우수 개선사례, 법령 개정사항을 회원사와 공유하고, 업종 공통 위험요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제지업종 전체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규정 너머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안전은 한 걸음씩 더 단단해지고 있다.



우리회사
슬로건

안전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장관표창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주)우성양행	팀장	이영재
2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식회사(CEC 2단계 Project)	프로	윤성진
3	남진건설(주) / 정선사북 아파트 건설현장 1공구	부장	권혁준
4	광신기계산업(주)	부장	이진복
5	지엠비코리아(주) 2공장	상무이사	조재용
6	(주)인터엠	책임매니저	김영실
7	(주)제이세이프티	대표이사	정정교
8	아진산업(주) 1공장	반장	석인준
9	주식회사 세이프지	대표이사	최요한
10	(주)신영	책임매니저	이상우
11	한국원자력연구원	팀장	정영석
12	삼원금형정공(주)	과장	신희석
13	(주)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최문호
14	(주)마이크로투나노	팀장	전기중
15	동서식품(주)	차장	정세일
16	스텨코(주)	그룹장	김두일
17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이사장	남선일
18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국장	송래영
19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지회장	강종현
20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과장	장경진
21	오비맥주(주) 광주공장	과장	차원호
22	경기산업보건센터(주)	이사	이준승
23	대보건설(주) /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차장	최병철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24	지에스파워(주)	상무보	김문식
25	(주)한국특강	대표이사	박성우
26	에스케이스페셜티주식회사	공장장	한영주
27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	팀장	최용수
28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과장	신동진
29	(주)한일정공	차장	이경락
30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과장	김상준
3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사무국장	신성호
32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대구근로자건강센터	국장	정연민
33	산업안전상생재단	팀장	서정수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부장대우	김영구
35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과장	심재윤
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	이미랑
37	한국건설안전(주)	대표이사	이진섭
38	동국대학교	교수	서용윤
39	(주)후니드	상무이사	백길현
40	(주)반도건설 /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차장	박정록
41	엠엔테크(주) 구로지점	운영소장	김홍식
42	휴먼원티드(주)	대표이사	홍은표
43	대륭종합건설(주) / 대륭포스트타워 9차 신축공사	이사	조선식
44	(주)에스엘미러텍	대표이사	김재규
45	(주)미래건설안전컨설팅	대표이사	최상용
46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역본부	차장	김준희
47	한국가스안전공사	차장	오건우
48	(주)에스피스틸	차장	오경석
4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대리	이명화
50	한국교통안전공단	과장	오명석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51	(주)반도건설 / 부산에코델타시티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차장	박종기
52	롯데웰푸드(주)	매니저	주성복
53	모트라스(주) 화성공장	매니저	명성
54	에스케이가스(주) 평택기지	SHE팀장	이재헌
55	매일유업(주) 청양	공장장	염재윤
56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	차장	안종우
57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58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준광
59	지에스파워(주)	상무	김영일
60	(주)비에스한양 / 청평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	서용준
61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지역본부장	이상철
62	엘에스일렉트릭(주) 청주사업장	전무	윤원호
63	롯데물산(주)	팀장	조현기
64	에어프레미아주식회사	차장	오용주
65	(주)라인산업 / 화성 동탄2택지지구 A58블록 아파트 신축공사	차장	조춘성
66	(주)신우	과장	권성준
67	신공향하이웨이주식회사	수석	배효섭
68	브니엘네이처(주)	차장	허진민
69	(주)소노인터내셔널	매니저	김훈
70	삼양로지스틱스(주)	파트장	임기성
71	씨제이제일제당(주) 인천1공장	공장장	정권채
72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부장	황의환
73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부장	김영무
74	(주)보원엠애플	책임	이도훈
75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신치용
76	이넵스(주)	상무	김정열
77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협력단	센터장	이지은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78	엘에스일렉트릭(주) 부산사업장	부문장	허영무
79	엘에스파워솔루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현일
80	일성건설(주) / 대구국가산단 A7-1BL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상무	정상원
81	케이워터기술(주) 동화권사업소	사업소장	윤종희
82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	안전관리자	이겨레
83	(주)담원디앤씨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조성공사[장기1차]	차장	최종현
84	볼보그룹코리아(주)	매니저	문성현
85	효성티앤씨(주) 구미공장	프로	장혜원
8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과장	홍주연
87	(주)이마트	대리	박해민
88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매니저	오광렬
89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	부장	이종관
90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임	장소미
9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	김광일
9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	김태한
93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안전보건교육센터	센터장	오기철
94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부장	서영호
95	탐스텐동강시스타(주)	차장	김찬홍
96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	부장	설주철
97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서부지회	부장	이진섭
98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팀장	하동오
99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	선임차장	김진만
100	매일안전기술원(주)	대표이사	오명근



발 행 일 2026년 7월
발 행 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052-703-0725
취재 및 제작 초이스컴(주) TEL. 070-4245-9599

* 이 책자는 안전보건공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 편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금하며, 자료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업무상 이익제기 등 소명자료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